

GO



| 숨겨진 포인트

신베이시 단수이구에 위치한 홍마오청은 400 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만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이며, 단수이 지역의 많은 귀중한 유형 문화 자산의 핵심 건물이다. 홍마오청 고적지는 주성을 비롯하여 전 청나라 영국 영사관저, 청대의 남문 등의 고적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적지의 건축단지는 그야말로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어 대만 근대 역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 역사의 발자취

17 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대만에 와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서 단수이강 하구에 '산토도밍고 성(Fort San Domingo)'을 건설하여 군사, 선교, 무역의 근거지로 삼았다. 비록 당시의 유적은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영문 명칭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원래 남부를 지키던 네덜란드인들은 1642 년 북상해 지룽 (지금의基隆)을 공략해 스페인을 대만에서 몰아내고, 1644 년 산토도밍고 성 터 근처에 새로 성을 재건하면서 네덜란드 연합동인도회사 총독의 이름을 딴 '안토니오 성(Fort Antonio)' 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것이 현재 사람들이 말하는 홍마오청이다. 네덜란드인의 머리색이 붉은 편이었기 때문에 당시 원주민들은 네덜란드인을 「홍마오」라고 불렀고, 붉은 머리색 사람들이 지은 요새를 「홍마오청」이라고 불렀다.

이후 정성공(鄭成功)이 남부의 네덜란드인을 물리치고, 정성공의 주력군이 남부에 주둔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홍마오청은 저절로 황폐화되었다. 1724 년 단수이 관청 동지(同知)인 왕첸(王汧)이 건축물을 병영(兵營) 용도로 보수하였고, 아울러 동서방향 2 개의 큰문과 남북방향에 2 개의 작은문 등 4 개의 성문을 증축하였는데, 현재는 남문만 남아 있다. 영국 - 프랑스 연합군의 전투 후, 1862 년 후웨이(현재의 단수이)가 개항하면서 북대만의 근대 발전사가 시작되었다. 1863 년 영국은 홍마오청을 임대해 영국 영사관의 사무 및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원래 회백색의 홍마오청을 벽돌색으로 칠했다.

제 2 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영국영사관이 폐쇄되었으나, 전쟁 후 영국인들이 홍마오청으로 복귀하여 영사관으로 다시 사용하였다. 1972 년 영국이 철수하고는 영국영사관은 호주와 미국 등에 넘겨져 관리되어오다가, 1980 년 정식으로 대만에 귀속되었다. 홍마오청은 대만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로 역사, 문화, 지리, 경제 등의 의미를 풍부하게 담고 있으며,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국가 지정 유적지이다.

관내 위치

신베이시 단수이구 중정로 28 항 1 호

교통 정보

MRT 단수이역에서 하차하여 홍(紅)26 번 버스나 836 번 셔틀 버스로 갈아 타서 「홍마오청 (진리대학: 真理大學)」버스정류장에 하차한 후, 표지판을 따라 이동

개방 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30-17: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09:30-18:00

휴관 안내

매월 첫번째 월요일 (국가 공휴일에는 평상시와 같이 개방하고, 다음날 휴관한다.) 음력 설날 그믐날과 설날, 그리고 정부공지 천재지변은 휴관, 기타 휴관일은 별도 공지



자세한 관람 정보를 원하시면 신베이시립 단수이 고적박물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QR-Code 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역사의 담금질 속에 풍조가 온전히 드러나다

홍마오청

